

言語使用에서의 성에 따른 差異에 대한

‘똥과 노’ 理論 (I)

- 부부간 언어사용의 차이를 중심으로 -

김 재 원*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언어사용에서의 성에 따른 차이
4. ‘똥과 노’ 이론
5. 결론

< 요약 >

본 연구는 언어사용에서의 성에 따른 차이에 대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성에 따른 언어적 차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차이를 ‘수직적-수평적’, ‘독립적-관계적’, ‘목적중심적-과정중심적’, ‘목표지향적-관계지향적’, ‘수시기능적-상시기능적’, ‘해결중심적-공감중심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그러한 언어적 차이들을 묶어서 상호관계적 관계에서의 “똥과노” 이론으로 정립하여 기존의 모델들과 비교분석하였다.

1. 서 론

언어사용에서의 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언어분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회언어학자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중반 이후의 페미니스트들, 심리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신분석가 및 부부상담가들에 의해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교양서적으로서도 남성과 여성의 언어 차이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과거의 부부유별

*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조교수

(夫婦有別)의 시대에서 오늘날의 부부무별(夫婦無別)의 시대로 오면서 언어사용에서의 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이해의 결핍이 심각한 이혼율을 낳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성에 따른 언어사용에서의 차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부부의 체험담 등을 토대로 하여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모델들을 상호관계적 역할 및 기능적 관점에서의 “돛과 노”라는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여 보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돛과 노”라는 모델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동양에서이든 서양에서이든 가부장적인 문화권에서의 교육과 훈련이 남성에게는 성장과정을 통하여 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에게는 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별되면서 주어졌으며¹⁾,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상생활 및 언어생활 전반에서 그 영향이 암암리에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성에 따른 언어사용상의 차이를 “돛과 노”라는 새로운 기능적 모델로 설명해 보기 위해, 2장에서는 언어사용에서의 성에 따른 차이 연구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론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3장에서는 그 차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보면서 4장에서는 그 차이를 “돛과 노”이론으로 설정하여 다른 이론들과 비교설명하여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언어사용에서의 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는 우열 모델과 차이 모델, 그리고 두 모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대성 모델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그 특징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 1) 차별(discrimination) 모델: 남성의 언어와 여성의 언어, 남성의 언어사용과 여성의 언어사용에는 분명한 종적 차별이 있다는 모델이다.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강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항목들이 결손 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간 대화에서 늘 불리한 입장에 있게 된다는 Lakoff(1975, 1979)의 연구와, 남성들에

1) Boys tend to play outside, in large groups that are hierarchically structured. Their groups have a leader who tells others what to do and how to do it, and resists doing what other boys propose. It is by giving orders and making them stick that high status is negotiated. Another way boys achieve status is to take center stage by telling stories and jokes, and by sidetracking or challenging the stories and jokes of others. Boys' games have winners and losers and elaborate systems of rules that are frequently the subjects of arguments. Finally, boys are frequently heard to boast of their skills and argue about who is best at what. Girls, on the other hand, play in small groups or in pairs; the center of a girl's social life is a best friend. Within the group, intimacy is key: Differentiation is measured by relative closeness. In their most frequent games, such as jump rope and hopscotch, everyone gets a turn. Many of their activities (such as playing house) do not have winners and losers. Though some girls are certainly more skilled than others, girls are expected not to boast about it, or show that they think they are better than the others. Girls don't give orders; they express their preferences as suggestions, and suggestions are likely to be accepted(Tannen 1990:43-4).

게는 사회적 힘이 있지만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힘이 없다는 상대적 불평등 때문에 남녀간 대화에서 남성은 주도적, 지배적 입장에 있게 되며 여성은 종속적, 피지배적 입장에 있게 된다는 Zimmerman & West(1983), Fishman(1990) 등의 연구와 페미니스트들의 남녀간 언어적 불평등(linguistic inequality)에 대한 접근 등이 여기에 속한다.

- 2) 차이(difference) 모델: 남성의 언어와 여성의 언어, 남성의 언어사용과 여성의 언어 사용에는 종적 차별이 아니라 횡적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모델이다. 남성과 여성은 다르게 태어났고 다르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하여 양자간 언어와 언어사용상의 차이도 나타나게 되며, 남녀간 대화에서 종종 여러 가지 형태로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것도 그러한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는 Tannen(1986, 1990), Maltz &orker(1982) 등의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
- 3) 상대성(relativity) 모델: 남성의 언어와 여성의 언어, 남성의 언어사용과 여성의 언어 사용에 종적 차별이나 횡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대화상황 안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자들 간 상호작용의 상대성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모델로 김귀순(2000)의 연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세 가지 모델을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하여 보려는 일종의 모색인데,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언어사용”을 주로 “부부간 언어사용”에 그 근간을 두고 보는 이유는 첫째, 유년기 시절부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언어교육이 남편(아버지)과 아내(어머니)의 역할에 맞추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둘째, 남성과 여성간 언어사용의 차별이나 차이 및 그 상대성이 부부간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셋째, 대화상에서의 화자와 청자의 범위를 부부로 좁혀서 볼 때 그 상호작용을 질적으로 깊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필자가 최근 3년 동안 부부간의 대화에 대한 강의²⁾를 하면서 얻은 부부들의 실제 체험담을 많이 참고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언어사용에서의 성에 따른 차이

남성과 여성, 특히 부부간의 문제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대부분의 불화가 서로의 조그마한 말 한마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2) 필자의 강의는 주로 차이 모델에 근거하고 있는 D. Tannen(1990)의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J. Gray의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1993), B. Pease & A. Pease(2000)의 Why Men Don't Listen & Women Can't Read Maps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이루어졌다.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사용에서의 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는 그 언어적 차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비교 분석하여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Tannen(1990)의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남녀간 언어사용상의 차이점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3.1 수직적 vs. 수평적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과거의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남성은 수직적 사고방식 하에서 여성은 수평적 사고방식 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Tannen(1990:24)이 제시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At the time I began working on this book, we had jobs in different cities. People frequently expressed sympathy by making comments like "That must be rough," and "How do you stand it?" I was inclined to accept their sympathy and say things like "We fly a lot." Sometimes I would reinforced their concern: "The worst part is having to pack and unpack all the time." But my husband reacted differently, often with irritation. He might respond by de-emphasizing the inconvenience: As academics, we had four-day weekends together, as well as long vacations throughout the year and four months in the summer. We even benefited from the intervening days of uninterrupted time for work. I once overheard him telling a dubious man that we were lucky, since studies have shown that married couples who live together spend less than an hour a week talking to each other; he was implying that our situations had advantages.

서로 다른 도시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는 필자인 아내와 그녀의 남편은 "어떻게 주말부부로 지내십니까?"라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아주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상대방의 말을 걱정하고 배려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남편은 그런 질문들이 자신들을 측은하게 보면서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Tannen은 이러한 경우를 "상하관계(status)"와 "대등관계(connection)"로 파악하면서, 남성은 상하관계에서 여성은 대등관계에서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남성은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이 뭘 모르면서 자기 부부를 불행한 부부로 단정 짓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반발을 하는 것이고, 여성은 자신과 대등한 관계의 사람이 자신들을 염려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³⁾.

3) Having done the research that led to this book, I now see that my husband was simply engaging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수직적 - 수평적 사고방식은 몸에 배인 일종의 가부장적 습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⁴⁾, 그렇기 때문에 언어생활을 떠나더라도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음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스스로없이 상대방에게 물어서 정보나 지식을 얻는 반면 남성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급적 스스로의 힘으로 정보나 지식을 얻고자 하는데, 이것은 정보를 얻기 위해 누구에게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 남성들에게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열세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부부동반 모임 등에서도 남편들은 서먹함을 느끼며 가깝게 대화를 나누는 데에 시간이 꽤 지나야 하지만, 아내들은 금방 가까워지면서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친숙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 남성(남편)들은 상대방에게 높임말을 할 것인지, 낮춤말을 할 것인지 먼저 결정되어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지만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이 쉽지 않아 조심스럽게 언어선택을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지만, 여성(아내)들은 그 선택을 쉽게 하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3.2 독립적 vs. 관계적

남성과 여성의 두 번째 언어적 차이는 남성이 독립적 사고를, 여성이 관계적 사고를 한다는 데에 있다. 이것도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인데, Tannen(1990:26)은 아래와 같은 예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When Josh's old high-school chum called him at work and announced he's be in town on business the following month, Josh invited him to stay for the weekend. That evening he informed Linda that they were going to have a houseguest, and that he and his chum would go out together the first night to shoot the breeze like old times. Linda was upset. She was going to be away on business the week before, and the Friday night when Josh would be out with his chum would be her first night home. But what upset her the most was that Josh had made these plans on his own and informed her of them, rather than discussing them with her before extending the invitation.

the world in a way that many men do: as an individual in a hierarchical social order in which he was either one-up or one-down. In this world, conversations are negotiations in which people try to achieve and maintain the upper hand if they can, and protect themselves from others' attempts to put them down and push them around. Life, then, is a contest, a struggle to preserve independence and avoid failure(Tannen 1990:25).

4) 제주도청 여직원회(2001)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가장 듣기 싫은 말 10가지”를 앙케이트 조사 했는데 다음과 같은 가부장적인 수직적 권위를 표현하는 말들이 주를 이루었다.(“이거 확실해? 근거자료 가지고 와봐.” “시키는 일이나 잘해야지.” “그렇게 해서 월급 받겠어?” “나는 옛날에 더한 일도 다 했어.” “내일 아침까지 해봐.” “당신 왜 그래.” “자넨 성질 때문에 잘되긴 글렀어.” “요새 한가하지. 일 좀 줄까?” “어디 갔다 왔어?” “미스 김, 차나 한잔 주지.”)

Linda would never make plans, for a weekend or an evening, without first checking with Josh. She can't understand why he doesn't show her the same courtesy and consideration that she shows him. But when she protests, Josh says, "I can't say to my friend, 'I have to ask my wife for permission'!"

이처럼, 남편인 Josh와 아내인 Linda가 생각이 서른 다른 것은 우리 문화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서구문화권의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여성인 아내가 부부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남성인 남편은 부부관계 이전에 남편 결정의 “독립”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비단 가정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Gray(1993)에 따르면,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여성들은 누군가에게 그 문제를 솔직히 터놓고 말을 하면서 공감을 얻어야만 기분이 풀리게 되는데 남성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만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나서야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고 한다. 그만큼 남성은 상대방으로부터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며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언과 충고가 여성에게는 애정과 관심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기 쉽지만 남성들에게는 대개 간섭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비록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아내와 아이들은 남편이 없을 때 서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인 것이다. Tannen은 이러한 차이를 “독립(independence)”과 “친교(intimacy)”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관계”라는 개념이 “친교”라는 개념보다도 “독립”과 더욱 분명하게 상응되므로 “독립적-관계적”으로 대비를 하였다.

3.3 목적지향적 vs. 과정지향적

세 번째는, 대화를 할 때 여성들은 말을 나누는 과정 자체를 즐기지만 남성들은 대화의 목적이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다. 결혼을 한 부부가 연애를 할 때는 대화를 많이 나누다가 결혼을 한 후에는 남편이 아내와의 대화를 내키지 않아 하는 경우가 잦아지는데, 그것은 아마도 남편이 결혼이라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남성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결혼 후에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대화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전화 통화를 할 때 뚜렷이 나타난다. 용건만을 간단히 말하고 전화를 끊는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들은 용건도 있지만 그 보다도 주위 사람들의 안부나 소식을 물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남성들이 대화의 목적을 중시하는 반면 여성들은 대화를 하는 과정 그 자체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주로 사람에 대한 말을 많이 하게 되지만 남성들은 사람이 아

닌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말이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한다(Tannen 1990:103).

Another woman's husband delivered a tape to her with great satisfaction and pride. "This is a good conversation," he announce, "because it's not just him and me shooting the breeze, like 'Hi, how are you? I saw a good movie the other day,' and stuff. It's a problem-solving task. Each line is meaningful." When the woman listened to the tape, she heard her husband and his friend trying to solve a computer problem. Everything they said was technical and impersonal. Not only did she consider it "a good conversation," she didn't really regard it as a conversation at all. His idea of a good conversation was one with impersonal, factual, task-focused content. Hers was one with personal content.

3.4 목표지향적 vs. 관계지향적

부부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세계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언어사용상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들은 오직 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화제를 가지있는 대화거리로 생각하지만, 여성들은 직원들과의 관계를 더욱 더 굳건히 다질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A woman who runs a counseling center noted that when she meets with women on her staff, it is not unusual for them to spend 75 percent of the time in personal talk and then efficiently take care of business in the remaining 25 percent. To man on the staff, this seems like wasting time. But the director places value on creating a warm, intimate working environment. She feels that such personal talk contributes to a sense of rapport that makes the women on her staff happy in their jobs and lays a foundation for the working relationship that enables them to conduct business so efficiently(Tannen 1990:118).

아래의 예문도 남성과 여성의 대화를 하는 목적이 확연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편은 자신의 일과 관련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대화만을 중시하는 반면, 여성들은 남편과의 대화 자체를 중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여러 가지 느낌이나 생각을 대화를 통해 남편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다.

Another cartoon shows a husband opening a newspaper and asking his wife, "Is there anything you would like to say to me before I began reading the newspaper?" The reader knows that there isn't -- but that as soon as he begins reading the paper, she will think of something. The cartoon highlights the difference in what

women and men think talk is for: To him, talk is for information. So when his wife interrupts his reading, it must be to inform him of something that he needs to know. This being the case, she might as well tell him what she thinks he needs to know before he starts reading. But to her, talk is for interaction. Telling things is a way to show involvement, and listening is a way to show interest and caring. It is not an odd coincidence that she always thinks of things to tell him when he is reading. She feels the need for verbal interaction most keenly when he is (unaccountably, from her point of view) buried in the newspaper instead of talking to her(Tannen 1990:81).

3.5 해결중심적 vs. 공감중심적

남성이든 여성이든 각자의 고통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응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자신들을 문제의 해결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의 불평이나 고통은 금방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도전쯤으로 받아들인다. 아래의 예에서도 아내는 공감(sympathy)을 원하면서 남편에게 말을 하지만 남편은 문제해결(problem-solving)의 방식으로 반응함으로써 서로가 어긋나고 있다.

Eve had a lump removed from her breast. Shortly after the operation, talking to her sister, she said that she found it upsetting to have been cut into, and that looking at the stitches was distressing because they left a seam that had changed the contour of her breast. Her sister said, "I know. When I had my operation I felt the same way." Eve made the same observation to her friend Karen, who said, "I know. It's like your body has been violated." But when she told her husband, Mark, how she felt, he said, "You can have plastic surgery to cover up the scar and restore the shape of your breast."

Eve had been comforted by her sister and her friend, but she was not comforted by Mark's comment. Quite the contrary, it upset her more. Not only didn't she hear what she wanted, that he understood that he understood her feelings, but, far worse, she felt he was asking her to undergo more surgery just when she was telling him how much this operation had upset her. "I'm not having any more surgery!" she protested. "I'm sorry you don't like the way it looks." Mark was hurt and puzzled. "I don't care," he protested. "It doesn't bother me at all." She asked, "Then why are you telling me to have plastic surgery?" He answered, "Because you were saying you were upset about the way it looked."(Tannen 1990:49)

대화는 이처럼 대부분 겉으로 표현되는 언어로 이루어지지만, 습성적으로 가정이나 직장 에서 일어나는 마찰이나 갈등 등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좋아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 불만의 핵심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 경우에 여성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그 대화에 담겨있는 암시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자신이 고통을 받

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으로부터 “나는 지금 너의 감정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할 뿐인 것이다. 위에서처럼, 아내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남성이 충고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말을 할 때 여성들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남성의 문제 해결식 표현은 “보고를 위한 대화(report-talk)”와도 상응한다고 볼 수 있는데, Tannen(1990)은 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남성은 ‘보고를 위한 대화(report-talk)’를 하는 반면 여자는 ‘공감을 얻기 위한 대화(rapport-talk)’를 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3.6 수시기능적 vs. 상시기능적

가부장적 문화권에서는, 여성들이 일생을 통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 왔다면 남성들은 가능하면 그러한 감정들을 억제하는 연습을 하여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항상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는 반면 남성들은 자신의 의사를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또 침묵을 대화전략으로 사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Women's dissatisfaction with men's silence at home is captured in the stock cartoon setting of a breakfast table at which a husband and wife are sitting: He's reading a newspaper; she's glaring at the back of the newspaper. In a Dagwood strip, Blondie complains, "Every morning all he sees is the news paper! I'll bet you don't even know I'm here!" Dagwood reassures her, "Of course I know you are here. You are my wonderful wife and I love you very much." With this, he unseeingly pats the paw of the family dog, which the wife has put in her place before leaving the room.

Tannen(1990:81)이 제시하는 위의 예에서도, 여성들은 하고 싶은 말들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남성들은 그에 대해서 내키지 않은 말을 하면서 최소한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인 반면, 남성들에게는 필요한 경우에만 수시적으로 사용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4. '돛과 노' 이론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다면, 성인이 된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살아가는 가정은 돛단배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 배에서 돛의 역할기능을 하는 것이 남성

(남편이자 아버지)이고, 노의 역할기능을 하는 것은 여성(아내이자 어머니)이라는 것이 “뜻과 노” 이론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에서 보자면 남성의 언어습득과 언어사용은 뜻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맞추어져서, 여성의 언어습득과 언어사용은 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맞추어져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이라는 배를 이끌어 가는 두 축인 뜻과 노는 형태적, 기능적, 속성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대비될 수 있는데, 3장에서 논했던 언어사용에서 성에 따른 차이를 여기에 대입해보면 그 특성들이 약간씩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⁵⁾ 대략 아래의 도표1)과 같이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다.

<표 1>

뜻	노
수직적	수평적
독립적	관계적
목적중심적	과정중심적
목표지향적	관계지향적
수시기능적	상시기능적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우선 뜻이 하늘을 향해 “수직적”으로 세워진 반면 노는 바다와 “수평적”이라는 것이며, 노는 배와 동일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관계적”이지만 뜻은 이질적 재질인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의 다른 부분들과는 구별되어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고, 뜻은 목적중심적이고 목표지향적이지만 노는 뜻이 목적지나 목표를 지향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정중심적이고 관계지향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뜻은 바람이 있을 때에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기능적이고 노는 바람과 상관없이 늘 기능함으로 상시기능적이라는 것이다.

4.1 차별 모델과 ‘뜻과 노’ 이론 비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부가의문문, 서술의문문, 허사 및 질문 등을 과다사용 함으로써 대화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고 열세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Lakoff(1973, 1975, 1979)의 차별이론 연구결과에 대하여, “뜻과 노” 이론은 그 과다사용이 관계지향적, 공감중심적이라는 노의 특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표현들은 모두 상대

5) 남성 언어의 특징들인 “수직적-독립적-목적중심적-목표중심적”과 여성언어의 특징들인 “수평적-관계적-과정중심적-관계지향적”이란 개념들은 별개의 개념들이라기보다는 그 의미가 상당 부분 겹치거나 서로 통하는 것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방과의 관계에서 공감을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이 담당하는 노의 역할기능으로 인하여 그런 표현들을 과다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도 자신보다 위계상의 상사를 대하게 되는 경우, 철모르는 아이들을 살살 설득하여 달래는 경우 등에서는 여성처럼 부가의문문이나 질문 등을 얼마든지 과다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 아내가 없을 때에는 남편들도 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말방해와 대화화제 주도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높은 빈도수를 보이기 때문에 남성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여성이 피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Zimmerman & West(1975), Fishman(1980) 등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돛과 노” 이론은 남성의 그러한 높은 빈도수가 독립적, 목적중심적, 목표지향적이라는 돛의 특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도 대화의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친밀도 등 다른 요인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단 대화의 내용이 별로 맘에 들지 않을 때 말방해가 일어나기 쉽고, 친한 사이일수록 대화화제의 주도권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도 가사 일이나 아이들의 교육문제 등 자신들이 주로 담당하면서 잘 알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대화를 할 때는 얼마든지 높은 빈도수의 말방해와 대화화제 주도를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때와 장소에 따라 여성들도 돛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2 차이 모델과 '돛과 노' 이론 비교

“돛과 노” 이론의 근간이 차이 모델에서 왔기 때문에 두 이론은 일단 외형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차이 모델에서 설명하는 남성 언어사용의 특성과 여성 언어사용의 특성들은 각각 개별적인 특성인 반면에 “돛과 노” 이론에서 설명했던 남성(돛)과 여성(노)의 특성들은 하나의 전체(이를테면 “가정”)에 속하는 두 개의 부분적 특성들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자에서는 고유의 특성들이지만 후자에서는 상호관계적 내지는 상호보완적 특성들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정이나 (여성이 사장인) 기업체 등에서는 여자가 돛의 역

- 6) Lakoff(1973:48)는 성차별어로 다음의 6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그녀는, 여성들에게는 자신을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수단이 없으며, 사소한 것들에 대한 표현들만 허용되고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불확실한 표현형태만이 허용됨으로써 여성 주체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1) lexical distinctions such as color terms: 여성들만 사용하는 색채어휘들이 많음.
 - (2) strong vs. weak expletive: 여성들은 약허사('oh dear', 'fudge' 등)만을 주로 사용함.
 - (3) women's vs. neutral adjectives: 여성들만 사용하는 형용사들('adorable', 'divine', 'charming' 등)이 있음.
 - (4) tag questions: 여성들은 부가의문문을 과다사용함.
 - (5) question intonations with statement syntax: 여성들은 진술문도 의문형 어조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
 - (6) strength of directive speech acts: 여성들은 공손하고 정중한 지시문을 주로 사용함.

할을 담당하면서 대화시 평상시 남성들이 보이는 특성들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4.3 상대성 모델과 '덧과 노' 이론 비교

상대성 모델은 차별 모델과 차이 모델에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언어 및 언어사용상의 특성들을 대화상황에서의 화자와 청자간의 상대성에서 파악될 때만이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본다. 말하자면 그 특성들이란 정적인 특성들이 아니라 양자간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의 특성들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덧과 노” 이론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그러한 정적인 특성들도 충분히 인정한다. 왜냐하면 성장기의 아동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남아들은 덧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언어와 언어사용을, 여아는 노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언어와 언어사용을 익혀 자신들의 특성으로 습관화하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만 4에서 언급한 것처럼, “덧과 노” 이론은 그 특성들이 정적인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기능성에 바탕을 두고 반복과정을 통해 습득된 것들이기 때문에 남성들도 여성들의 특성을, 여성들도 남성들의 특성을 각각 반대로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그 특성들을 끌고루 가질 수도 있게 된다는 점이 상대성 모델과 다른 것이다.

5. 결 론

우리들의 삶은 사실 대화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일상의 대화를 분석하고, 대화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작업이 갖는 사회언어학적 의의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틀이 남성과 여성, 더 나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므로 그 관계를 형성하여 가는 도구로서의 언어 사용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말을 두고도 왜 다르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왜 대화 과정에서 종종 오해가 생기는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들에 초점을 두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차별 모델과 차이 모델, 상대성 모델 등에서 나온 언어사용에서의 성에 따른 차이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새로이 “덧과 노” 이론이라는 상호관계적 기능적 모델 속으로 넣어 “덧과 노” 이론이 기존의 모델들보다 남성과 여성의 언어사용의 차이를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음을 규명하여 보았다.

물론 각각 독특한 개성들을 지닌 개개인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개의 틀로 묶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남성같은 성향을 지닌 여성도 있을 것이고 여성같은 성향을 지닌 남성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부유별(夫婦有別)의 시대에서 부부무별(夫婦無別)의 시대로 오면서 언어사용에서의 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이해의 결핍이 심각한 이혼율을 낳

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에 따른 언어 사용 차이에 대한 연구는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만을 자료로 하여 분석하여 보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자료 조사를 통하여 “뉘과 노”라는 새로운 모델이 보다 더 설명력 있는 이론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Fishman, P.(1980). Conversational Insecurity. In Giles, Robinson, and Smith.
- Gray, J.(1993).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
- Lakoff, R.(1973) Language and Women's Place. Language and Society.
- _____ (1975) Language and Women's Place. New York: Harper and Row.
- _____ (1979) Women's Language. in Butturff & Epstein (eds).
Women's Language and Style. Akron, OH: University of Akron.
- Maltz, D. & Borker, R(1982). A cultural approach to male-female misunderstanding, in Gumperz (eds). Language and Social Ident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ase, B & Pease. A(2000). Why Men Don't Listen & Women Can't Read Maps.
- Tannen(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New York: Morrow.
- Vetterling-Braggin, M.(1981). Sexist Language.
- West, C. & Zimmerman, D.(1983). Small insults: a study of interruptions in cross-sex conversation between unacquainted persons. in Thorne. Henley & Kramarae (eds). Language, Gender and Society. Rowley, MA: Newbury House.
- 김귀순(2000). 남녀화법의 상대성이론. 사회언어학 8(1).
- 최용선(2001). 언어와 성에 관한 연구의 비평적 개관. 사회언어학 9(2).